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4일 목요일 음 4월 13일 (5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20℃, 낮 최고 기온은 24-27℃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values for Jeju, Seosan, Gosan, Seogwi.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몰림 and values for sunrise/sunset and moonrise/set times.

Table with 3 columns: 내일, 맑음, 19/26℃ and 모레, 구름 많음, 19/25℃.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and values for food safety and UV index.

월드뉴스

미 퇴역장성들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다”

블랙호크 전투헬기 진압 투입



군용헬기 저공비행 위협에 저항하는 시위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사망 규탄 시위 강경진압을 천명한 가운데 군 전투헬기까지 투입되자 퇴역장성들이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다”라며 한목소리로 거세게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틴 뎀프시 전 합참의장은 트위터에 통해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며 우리의 시민은 적 아니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토니 토마스 예비역 장군도 트위터에 “미국이 전쟁터라고? 내전이나 적들의 침공이 아닌 다음에야 결코 들을 필요 없는 말”이라고 일갈했다.

샌디 위네켈드 전 합참 부의장은 문제의 헬기를 문 조종사 2명이 “연방군은 국가의 존립이 위협되는 가장 심각한 상황”임을 상관들에게 감시시켜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워싱턴DC 차이나타운에서 육군 소속 블랙호크(UH-60) 한 대가 건물 높이 수준으로 낮게 비행했다. 저공비행으로 각종 잔해와 나뭇가지 등이 날려 시위대가 맞을뻔했다.

이날 의료수송 등 재난임무에 투입되는 라코타헬기(UH-72)도 저공비행 등으로 작전기동을 실시했다.

당시 군 헬기가 시위대 바로 위에서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제자리 비행을 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전쟁터에서 반란세력을 호트러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무력 과시”라고 NYT는 지적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이 경 응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을 철수했다. 개점 5년 안에 1000억의 매출, 360억 규모의 순이익을 장담하며 뛰어들었지만 4년 만에 손을 들었다.

지금의 결과는 어쩌면 이미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브랜드 협상력, 규모의 경제, 전문적인 운영경험에 외부환경에 민감한 면세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력이 큰 대기업들도 버텨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출내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살아남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관광공사의 변화가 필요하다

걱정은 앞으론다. 시내면세점 철수만으로 제주관광공사의 재무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의회 현안보고에서 자본금 증자 얘기부터 꺼낼 정도로 남아있는 지경·항만면세점 등 수익사업의 뚜렷한 대안조차 없는 상황이며, 도민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관광공사가 본연의 목적인 통합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한 자립경영과 이익창출 명분하에 수익사업에 집중했지만 결국 무리한 면세사업의 투자확장은 너무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과 같은 지방공기업보다는 오히려 도내 관광조직을 통합한 관광청 설립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경제에 미치는 관광산업의 비중과 공적영역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할 때 관광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통합된 관광조직의 힘이 아쉽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는 또

다른 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 기업 반산업인 관광산업 또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준비가 요구된다. 하지만 제주도의 통합관광마케팅 전문기관으로 탄생한 제주관광공사가 지금과 같이 적자에 허덕이는 경영재무위기에 도 재정지원없이 조직의 존립자체마저 흔들리는데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관광공사의 경영위기에 대한 냉철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지금의 위기상황이 정말 통제불가능한 외부환경적 요인인지 혹은 공사의 자율성마저 부여받지 못하는 행정과 시스템 문제는 아닌지, 공사 자체 내 방대한 사업과 조직운영의 문제는 없는지, 관광유관기관들과 불필요한 사업중복과 낭비요소가 없는 것인지 철저한 자기반성이 우선이다.

제주관광공사의 탄생배경은 행정

력적 운영, 통합마케팅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이었으나 제주관광공사의 설립준비 당시 검토됐던 관광청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는 것은 그만큼 당초 설립취지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쉬운 길은 아니다. 서울시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서울관광재단으로 바꾸었고, 강원도 또한 관광공사 설립계획을 관광재단 출연으로 변경했다. 인천광역시도 인천도시공사와 통합과 독립을 반복했고, 부산관광공사는 비상경영 속에 노사갈등 문제가 현안이 되는 등 지역관광공사가 지닌 한계가 분명해 보이고 나타나 할 것 없는 우리의 현 주소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의 재정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미래 제주관광공사가 가야할 방향과 변화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건널 제주관광조직의 탈바꿈이 필요한 때이다.

열린마당

자동차 구입과 이사하기 전, 이것만은 꼭!

세계 환경의 날 지구에게 심포를



정 승 보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제주시에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19개 동 지역의 대형차에 대해, 2017년에는 중형차까지 차고지 증명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이제 2022년 1월부터는 소형과 경형 자동차까지 전체 차량에 대해 신차 또는 중고 차량을 구입할 때 반드시 차고지가 확보되어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됐다.

차량 구입 전 확보해야 하는 등록 차고지 기준은 자동차 주소지(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장소에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부설 주차장, 타인소유 토지(대지, 잡종지)·건물(상가, 마트 등)의 부설주차장 또는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을 최소 1년 이상 임대할 경우는 가능하다.



정 언 옥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매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 지구를 위한 다짐을 새기는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25회 환경의 날 행사’ 규모를 축소해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오프라인, 온라인 행사로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행사는 6월 5일(금) 환경의 날을 기념해 제주동문시장 일원에서 오늘날 비닐 없는 장·바(장 불 때 장바구니) 캠페인이 진행되며, 온라인 행사로는 청소년 환경백일장과

환경퀴즈대회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운영된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행사 사이트(www.jejujisok.smart9.net)에 접속해 정보를 얻어 가면 좋겠다.

지금의 상황을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한다.

인간이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멈추자 생태계가 안정화되고, 지구 환경이 건강해졌다고 하니 얼마나 역설적이고 슬픈 현실인지 모르겠다. 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해결의 실마리 즉, 열쇠를 우리 스스로가 쥐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들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금 불편하고 귀찮지만 휴지대신 손수건,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고, 일회용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겠다. 또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모두의 작은 실천으로 지구에게 심포를 주자.

이제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한 때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Sorisem Digital Insurance,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product images.

Advertisement for Marblein stone products, showing various stone samples and a warehouse.